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자

현존하고 있는 지구상에는 150만종의 생명체가 살고있다.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질서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있다. 이를 통칭하여 생태계라 한다. 현존하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서로의 존재가치를 만끽하며 생명의 환희,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특히 다른 생물과 달리 조물주(creator)의 특권을 부여 받은 양 사육하는 취미를 찾아 향유할 줄 아는 지혜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오만과 욕심은 과학문명이란 새로운 내적 부산물로 신의 섭리(providence)에 도전하여 급기야 고도문명의 산물들이 우리 주변을 자연으로부터 격리시켜 놓고 말았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단아한 선비의 모습과 고요한 아침을 알리는 건너마을 수탉의 울음소리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소리, 초저녁부터 밤이 깊도록 들려오던 야박네의 다들이 소리는 영영 우리의 걸을 떠나고 만 것이다. 생각하면 잃은 것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작으나마 자연의 소리를 되찾고자 새기르기 취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8천5백여종의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으나 매년 각종 공해로 한두종씩 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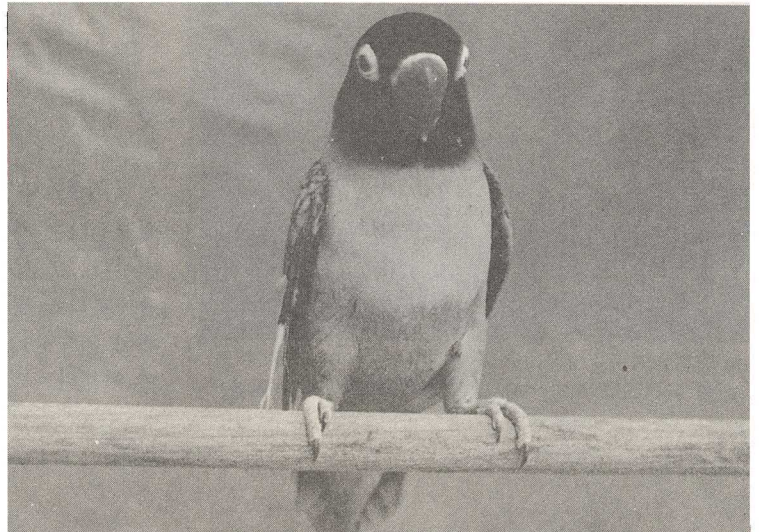
송 순 창
〈대한조류협회 회장〉

되어 가는 가슴아픈 실정이다. 이 중에서 양조의 종류는 1백50여종이 된다.

그러면 養鳥와 野鳥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야조는 대자연속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고 번식하며 자립하여 살아가는 種으로서 科, 屬으로 분류되며 각기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고 있다. 한지역에 영주하며 사는 텃새, 때로는 살 곳을 찾아가는 통과새(나그네새), 하절기를 따라 이동하는 夏鳥(여름새), 추운 곳을 찾아가는

冬鳥(겨울새)들, 많은 철새들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조용히 살아간다. 그러나 양조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좁은 공간에 길들여 사육해 온 결과 자연상태로의 환원이 어렵게 된 새로 새장 내에서 산란하며 번식하는 능력을 갖게 된 새로서 주 사료는 식물성만 섭취하는 특색이 있다. 새를 기르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고 화려한 색상과 번식하는 즐거움은 인간에게 기쁨과 위안을 준다.

인간의 취미를 대별하면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조류나 짐승을 기르는 취미는 동적이며, 화초나 수석은 모으는 일은 정적이라 말할 수 있으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새를 기르는 집이 12가구에 한집 꼴, 일본은 22가구에 한집 꼴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00~700 가구에 한집 꼴이라면 아직도 취미의 다



양화가 되지 못했다 하겠다. 조류 취미가 문화국민의 척도가 된다 빈 우리도 조류사육연구가 늘 것 이라는 밝은 전망은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1. 養鳥의 분류

1) 燕雀目 金腹科(英名: Finch)
<핀치과>

(예) 십자매, 금화조, 소문조, 문조, 금징조, 남양청홍조, 호금조, 일홍조, 일환조, 녹자작, 대금화조 (다이야부드 핀치), 소정작, 청회 조, 청홍조, 상반작, 홍작, 협홍조 외 20여종.

2) 燕雀目 金系雀科

(예) 카나리아등 30여종.

3) 鸚鵡科

(예) 사랑새(잉꼬), 모란앵무, 왕관앵무류 (소형앵무, 중형앵무, 대형앵무)

4) 鳩科(비둘기과)

(예) 박설구, 자코빈, 은비둘기, 물통비둘기, 전서구, 집비둘기, 공작비둘기, 염주비둘기.

2. 사육요령

1) 핀치과: 십자매를 假母 하여 모든 핀치과는 번식을 하게됨. 고급핀치 1쌍에 십자매 6쌍이 필요함.

2) 금사작과(카나리아과): 자체 번식을 하므로 가모가 필요 없음.

3) 앵무과: 자체번식을 함.

4) 비둘기과: 자체번식을 함.

3. 사 료

1) 주사료: 메좁쌀, 피, 카나리아씨드, 들깨, 유채씨, 수수

2) 보조사료: 칼슘분(오징어뼈 <보레>, 계란껍데기), 청채(배추잎, 무우잎)

3) 기타: 물, 모래

4. 조류사육의 환경적 요건

1) 온도: 겨울철에는 20℃~25℃를 유지시켜야 하며 10℃ 이하로 떨어지면 산란하지 않고 고급

핀치는 落鳥 되기 쉬움.

2) 습도: 60%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겨울철 난로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 놓을 것.

3) 통풍: 특히 여름철에 통풍에 주의해야 하며 통풍이 안되면 설사병으로 죽게됨.

4) 일광: 어두운 곳에서는 자외선형광등을 사용할 것.

5) 안정: 새장의 위치를 자주 옮기지 말 것.

5. 사료급여 방법

일출시로 부터 8시(오전)까지는 새의 교미시간이므로 8시 이후에 사료를 급여한다.

1) 보통때: 메좁쌀, 피, 카나리아씨드를 3:3:2정도로 섞어 준다. (1일분씩)

2) 발정시기때: 좁쌀 800g에 계란노른자 3개~4개를 섞어 코팅하여 줌. (난조)

3) 포란시: 알을 낳아 품을 때는 난조를 주지 말고 맨좁쌀에 피, 카나리아씨드를 섞어줌.

4) 부화시: 14일~18일동안 포란시간이 지나면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다. 이때는 난조를 다시 주기 시작함. 야채는 매일 조금씩 주지만 특히 새끼를 육추할때에는 필히 급여해야함.

6. 種鳥 고르는 법

1) 어린 새나 亞成鳥를 고를 것.

2) 눈이 둥글고 총기가 있는것을 고를 것.

3) 체격이 날씬하고 항문주의가 깨끗한 것을 고를 것.

4) 부리와 발톱 날개에 이상이 없는 것을 선택할 것.

5) 근친에서 나온 것을 가려 고르되 한집에서 같은 종을 많이 사지 말 것.

6) 색상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을 선택할 것.

7) 자웅을 살 때 암수 연령이 비슷하거나 숫컷이 좀더 나이 든 것을 고를 것.

7. 암수 감별

1) 금화조, 호금조, 남양청홍조와 같은것은 숫컷의 색상이 아름답고 암컷은 그렇지 못함.

2) 십자매: 숫컷은 발정기때 목을 길게 뽑고 깃털을 세우며 운다.

3) 사랑새(잉꼬): 남막(꽃구멍 부근)의 색깔이 암컷은 우유색 또는 황색으로 됨. 수컷은 푸른색 또는 살색을 띠고 있음.

4) 카나리아: 숫컷은 요란스럽게 운다. 항문의 돌출부분이 뾰족하게 나온것은 숫컷이나 암컷은 완만함.

5) 비둘기: 박설구는 숫컷이 발정되었을 때는 꼬리부분을 세우고 운다.

6) 모란앵무: 어린새기때는 암수 감별이 어렵다. 두마리가 함께 정답게 붙어 다니는 것은 틀림없는 자웅이나 숫컷은 햇대에 앉을 때 다리의 폭이 좁고 암컷은 넓다. 골반이 넓은 것은 암컷이며 좁은 것은 숫컷임.

8. 각종 조류의 발정시기

1) 십자매, 금화조~생후 100일~120일

2) 잉꼬, 박설구~생후 180일

3) 카나리아, 문조: 4월 이전에 부화된 문조는 그해 10월경 발정되며 카나리아 역시 4월이전에 부화된 것은 그해 11월경 산란 가능하나 4월이후에 부화된 것은 그해 산란하지 못함.

4) 기타: ① 보통 6개월~8개월이면 대개 성조가 됨. ② 새의 산란기간은 3년~5년간이며 수명은 5년~8년정도. ③ 7~8월에는 모든 새의 휴식기간이므로 동우리를 제거시킴. ■